

7과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그리고 ‘분노’입니다. 사실 분노는 인간이 가진 가장 자연스럽게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정의를 부르짖는 뜨거운 동력이 되기도 하고, 상처받은 나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분노는 다스려지지 않은 채 폭발하여 소중한 관계를 태워버리거나, 반대로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독한 쓴 뿌리로 남습니다. 절제되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분노는 결국 상대를 해치고 나 자신마저 무너뜨리곤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내 안에서 솟구치는 분노의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해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조금 더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 파괴적인 분노의 사건들」

1) 가인의 살인: 비교에서 시작된 영적 시기심

인류 최초의 살인은 놀랍게도 ‘예배’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며 분노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내면의 끓어오르는 불길을 끄지 못했고, 결국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2) 시므온과 레위: 정의의 가면을 쓴 잔인한 보복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수치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누이의 복수를 위해 할례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거짓 꾀로 이용했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두 사람은 칼을 들고 성읍을 기습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남자를 잔인하게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3) 모세의 므리바 사건: 피로와 좌절감이 터뜨린 혈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끊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며 그의 내면에도 피로와 좌절감이 쌓여갔습니다. 므리바에서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모세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물은 솟아났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평생을 바라보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 요나의 불순종: 내 생각과 다른 결과로 인한 분노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배움을 입으며 회개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요나는 심히 분노합니다. 자기 기준에서는 저 악독한 원수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공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 사울 왕: 자기의 권력(유익)을 지키기 위한 집착적 분노

왕으로서의 체통과 권위를 위협받았다고 느낀 사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그의 내면은 시기와 질투,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다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눔 질문

1.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에 각자 분노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취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쉽게 분노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분노가 올라올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3가지 실천」

1) 인내, 또 인내합니다.

앞서 우리는 사랑이 오래 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쉽게 성내지 않고 기다려 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잠언 16: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 인내 레벨 1 - 상황을 견디는 것
- 인내 레벨 2 - 사람을 견디는 것
- 인내 레벨 3 - 시간을 견디는 것

## 2) 말의 실수를 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마디의 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십수 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번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 수만 있다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언은 실언으로 가는 길입니다. 침묵보다 나온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여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노가 쌓이고, 감정이 뜨거울 때는 말을 극히 아껴야 합니다.

## 3) 감정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교회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열정이 없는 사람과 동역하기는 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열정으로 여백 없이 꽉 차 있고, 너무 뜨거우면 쉽게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 좌절감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20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의” 때문에 화를 내는데, 성경은 화를 낸다고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정의는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열정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적용하기」

### 80%의 실천

- 1) 감정의 80%만 말하기
- 2) 사역과 봉사도 80%만 섬기기

## 「묵상하기」

이 그림은 17세기 화가 피터 폴 루벤스(Peter Paul Rubens)의 작품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 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삼상 25:22)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다윗처럼 즉시 나서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말로 해명하고, 내 손으로 갚고, 내 방식으로 상황을 끝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 다윗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멈춤을 사람의 방해로 여기지 않고, 피 흘림과 보복의 길에서 자신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만류는, 다윗이 분노로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였습니다.

## 「나눔 질문과 기도」

1. 분노가 더 큰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신 은혜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내 삶의 ‘아비가일’과 같았던 사람이나 말씀, 상황을 떠올려 보고 나눠봅시다.
2. 내 삶에 20% 정도 긴장을 줄여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3. 인내의 근본은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길 서로를 위해 기도 합시다.